민주·인권 교육으로 도시 빈민들 삶 바꾼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❷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2005년 수상자)

"잘못 감추려는 권력자들 조작 5·18항쟁 왜곡·폄훼 불러 광주시민들이 제대로 지켜야"

"5·18 민주화운동이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폄훼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감추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5·18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사실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어떠한 노력도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NGO단체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인 와르다 하피즈(여·63·Wardah Hafiz·2005년 광주인권상 수상)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5·18은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큰 사건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빚어낸 값진 결과인데,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폄훼되고 있다니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도심 빈민의 어머니'로 통하는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5·18 이후 광주와 한국의 인권발전은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이 추구하는 표본이자 본보기"라며 "민주주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다. 나는 벗들에게 5·18을 말하면서 희생 정신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다. 희생 없인 얻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 이후 한국은 경제·정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는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의 세계화와 관련해선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5·18이 민주·인권에 목마른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여러 나라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5·18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나는 벗들에게 민주·인권 교육을 자주 하는데, 자신들이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해당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고선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며 "5·18도 마찬가지다. 5·18이 전국화·세계화되기 위해선 광주정신이 왜 중요한 것인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지난 1993년부터 인도네시아 모슬렘 여성운동의 지도자로서 남녀평등과 빈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왔다. 이후 1997년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를 결성, 정부의 강제철거와 불평등한 사회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적인 이슈에 맞서 빈민의 인권을 지키는 등 저항 운동에 나서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물러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카르타=이종행기자

인니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 맡아
위생·의료서 일자리·주택까지 빈민운동

지난달 24일 오후 1시 인도네시아 꼬따(Kota) 무아라 바루(Muara baru) 빈민촌 마을 회관에선 인도네시아 NGO 단체 도시빈민협의회(UPC·Urban Poor Consortium) 사무총장인 와르다 하피즈(여·63·Wardah Hafiz)씨와 유치원 교사·보건소 직원·자카르타 도시빈민네트워크(JRMK·Jaringan Rakyat Miskin Kota) 회원·빈민촌 주민 등 25명이 위생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와르다씨가 "주민들이 끓인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곳 주민들은 그냥 물을 마신다"고 말하자, 유치원 교사인 아미니(여·38·Amini)씨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물을 끓여 마시는 법을 알려주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무하자티(여·47)씨는 "이곳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물을 그냥 마셔왔다. 이곳 주민들은 맹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하던 와르다씨는 물을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와르다씨는 물을 끓여 마시지 않을 땐 식중독·콜레라·장티푸스 등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뒤 국내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의료수준이 낮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미흡해 의료비용이 비싸 빈민층에겐 의료보험 혜택이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에겐 감염병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이곳에선 주민 5명 중 2명이 수인성 감염병에 걸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도,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마을에서 30~40㎞ 떨어진 곳에 병원이 있는데, 하루 전날 가서 대기해도 돈이 부족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2만9752㎡ 너비의 무아라 바루 빈민촌엔 7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직선거리 100m의 자바해(Java sea)를 경계선으로 빈민층과 부유층 지역이 나뉘어져 있다. 한쪽엔 한 세대당 132.2㎡ 너비의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반면 반대쪽엔 쓰레기 매립지 위에 지어진 3.3㎡~16.5㎡ 너비의 벌집 모양의 집들이 늘어서 있다.

이들 주민의 하루 평균 수입은 1달러~3달러 수준. 이들 대다수는 농촌에서 살던 중 인도네시아의 산업화에 힘입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왔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도심 빈민층으로 전락한 이들이다.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이들 주민은 생수로 식수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하루 평균 임금이 고작 1~3달러에 불과해 생수를 사먹기도 쉽지 않다. 이는 와르다씨가 도심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와르다가 이끄는 도시빈민연합의 활동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빈민들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도록 이끄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사회복지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 고용·노동 교육·법 개정·건강문제 등 도심 빈민층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중에서도 민주·인권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이는 빈민층 스스로 강해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빈민층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5·18 정신을 가르친다. 민주·인권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와르다 하피즈씨는 "정부에선 도심 빈민들이 1000만 명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론 전체 인구의 40%인 1억1000만 명 정도가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민"이라며 "이들이 도심 속에서 버림 받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ee@kwangju.co.kr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무아라 바루 빈민촌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취재진을 향해 밝게 웃고 있다. 이 아이들은 궁핍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꼬따(Kota) 무아라 바루(Muara baru) 빈민촌 골목길 모습. 금방이라도 쓰러질듯한 판잣집과 콘크리트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비영리 NGO 단체…빈민가 주택 무상 보급·강제이주 방지 업무 역점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UPC)는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UPC)는 비영리 NGO 단체다.

지난 1997년 9월 설립된 UPC는 도시의 주거권·퇴거명령·빈곤·환경 등 주로 도심 빈민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UPC엔 NGO 활동가·연구원·예술가·건축가·언론인·인류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UPC의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빈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dz)다. 그녀는 지난 2005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도심 빈민들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헌법보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특징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발언권을 준다는 점이다.

UPC는 지난 1990년대 초반 독재정권 하에서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UPC는 지난 17년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빈민가에 1000여채가 넘는 집을 지은 뒤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또 도심 빈민으로 전락한 이들이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UPC의 중요 업무 중 하나다.

UPC가 농촌의 빈민보다 도심 빈민에 더 관심을 쏟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심 빈민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UPC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빈민을 위한 민주·인권교육과 법률 개정을 위한 홍보활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